

저는 부분적으로 첫번째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대체로 두번째 의견에 동의한다.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일을 하지 않고 담배를 피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누구에게도 담배를 팔 권리가 마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담배를 피는 것은 건강에 나쁘고 피지 않는 쪽이 좋다. 그러나 담배도 일종의 기호 식품이기 때문에 규칙을 만들어 금지하는 것은 정말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담배는 분명히 건강에 나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멀리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에게는 담배를 팔지 않도록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 때문에 규칙을 반드시 만들지 않으면 안됩니다. 담배를 피는 사람도 때와 장소를 구별해서 담배를 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자들은 밖에서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이상합니다. 단순히 남자들이 싫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굉장한 생각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만일 어떤 여자가 길에서 담배를 핀다면, 어느 어른 남자가 접근해서 혼낼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보통 레스토랑이나 커피숍에서 담배를 씹니다.

선진국에서는 점점 담배를 끊는 사람이 증가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점점 담배를 피는 사람이 증가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텔레비전에서 담배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담배를 아주 좋아합니다.

담배는 분명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금지하는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피는 사람이 조금만이라도 주의해서 담배를 핀다면 어떤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